

철도공단 대전·충청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협의회 확대 구축



1 대전·충청지역 8개 공공기관이 7월 29일 업무협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했다. 2 국가철도공단 사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 7개 공공기관과 ‘대전·충청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협의회’(이하 협의회) 확대 구축을 위한 비대면 업무협약을 7월 29일 체결했다. 공단을 비롯한 8개 공공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지역 기업과

주민의 고용안정 지원 ▲ 지역인재와 취약계층의 취업 및 창업 지원 ▲ 지역 저소득층 경제적 자립 지원 등 ESG 경영 실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후속 일정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비대면 업무 협약식을 열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공단은 지난해 7월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관과 함께 협의회를 출범하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대국민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기존 협의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이 새로 추가돼 ‘대전·충청·세종 공공기관 협의회’로 외연을 확대하고, 지역 대학생 취업 지원 멘토링과 자활기업 출장 세차 등 신규 협력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이번 협의회 확대에 동참해준 공공기관에 감사드린다”며 “각 기관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⑦

